NEWS

2025년 4월 24일 목요일

전남도, 클린 국가어항 조성사업 전국 최다

강진 마량항·해남 어란진항·영광 계마항 등 3곳 선정

2029년까지 조성…어민 삶의 질 향상·관광기반 다져

전남도는 해양수산부 주관 '2025년 클린(CLEAN) 국가어항 조성사업' 공모에서 전국 7개 선정 어항 중 3곳을 차지하며, 전국 최다 선정이라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CLEAN 국가어항 조성사업'은 낙후 어항의 환경을 정비하고, 방치된 폐어구 및 기자재를 정리하며, 경관과 기능, 편의시설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어업과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 해양공간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다. 어항별로 최대 15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되며, 2029년까지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

선정된 어항은 강진군 마량항, 해남군 어란진항, 영광군 계마항으로, 전남을 대표하는 국가어항이다. 각각의 지역 특색과 여건에 따라 각각의 방향성을 갖고 새롭게 조성된다.

강진 마량항은 마량놀토수산시장과 연계한 관광형 어항으로 유휴 부지를 활용한 친수공간 조성, 주차장 정비, 노후시설 철거 등을 통해 어촌 체류 기반을 강화한다.

해남 어란진항은 해남의 대표 어업 거점 중 하나로 어업인의 작업환경 개선과 주민 휴식공간 확충을 위해 노후된 어민회관을 신축하고, 대체 진입도로와 광장형 친수공간을 새롭게 조성한다.

영광 계마항은 서해안의 전략 거점 어항으로, 항만 부지를 활용해 복합 광장, 산책로, 해양레저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폐기물 적치장 등 경관 저해 요소를 정비해 해변과 항만을 연결하는 공간 통합계획을 통해 해양 문화 공간으로 재탄생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공모 초기부터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전략적 대응을 추진했다. 시군 참여를 유도하고 전국의 해양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사전 컨설팅을 진행, 각 항별 특성과 장점을 살린 개발 방향 등을 제시해 공모에 선정되도록 지원했다.

또한 해수부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지역 여건을 적극 설명하고,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예산과 정책적 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왔다.

박태건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이번 클린 국가어항 선정은 전남 어촌의 잠재력과 도의 전략적 노력이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어항 개발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많은 사람이 찾고 머무르는 어항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외국인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도, 예방·사후관리 대책 마련

전남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한 '취약 분야 외국인 근로자 노동인권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위기상황 발생 시 사후 지원이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이주노동자 단체, 전문가, 관계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실효성을 높였다.

전남도는 종합대책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차별 없는 건강한 일터를 조성하기 위해 5개 핵심 분야에서 총 17개 과제를 중점 추진한다.

5개 핵심 분야는 외국인 근로자 사회적 고립 해소, 고용주 및 근로자 인식 개선, 노동인권 실태조사, 사회안전망 구축, 지역사회 기반 일상회복 지원이다.

전남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회적 고립 해소 및 안정적 정착을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남 이민외국인종합지원센터가 중심이 돼 각종 행정·노동·복지 정보를 외국인이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연계·안내하는 허브 역할을 한다.

언어와 문화적 장벽으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가 꼭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접하도록 다국어로 된 맞춤형 안내 서비스(전남 웰컴 북)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운영 중인 '찾아가는 상담소'도 기존 6개소에서 22개소로 확대한다. 상담소를 통한 생활·노동 상담뿐만 아니라 우울증 예방 교육, 나라별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 심리안정과 사회적 연대 형성도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1면 '민주 호남경선'서 계속

노무현 대통령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문재인 대통령의 호남 인재 등용과 한전 공대 설립 공약처럼 지역민들의 표심을 파고들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예를 들어 기후에너지부처와 인공지능부처를 신설해 초대 장관에 호남 인사를 중용하고 호남에 국제적인 규모의 기후에너지와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센터와 전진기지를 설립하고, 전용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등의 획기적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는 얘기다.

전남도는 23일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이 열리는 목포종합경기장에서 무대 등 대축전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사진제공=전남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준비 '착착'

도, 경기장 안전대책·교통 혼잡 예방 등 집중

전남도는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회식이 열리는 목포종합경기장에서 무대 등 대축전 준비상황을 23일 점검했다.

점검에는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유현호 전남도 관광체육국장, 손점식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 체전지원단장, 용역사 감독 등이 함께했다.

개회식 연출 공간 및 주차장과 화장실 등 주요 시설물과 수송·교통 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중점 점검했다. 선수 및 관람객 등이 운집할 개회식의 안전관리 대책 및 관람객과 주요 초청 인사들의 동선도 확인했다.

전남도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대회를 위해 경기가 열리는 경기장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으며, 전문가와 관계기관 합동점검도 마쳤다. 특히 개회식 당일 안전요원과 교통통제 요원을 배치해 인파 분산 및 교통 혼잡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명창환 부지사는 "전남을 방문하는 선수단과 관람객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도록 전국체전과 전국소년체전 성공 개최 경험을 바탕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2025 전국생활체육대축전은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주 개최지 목포를 비롯한 20개 시군 57개 경기장에서 41개 종목이 분산 개최되며, 개회식은 25일 목포종합경기장에서 열린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영암 시종 고분군, 국가문화유산 사적 된다

옥야리 장동 방대형 고분 1기·내동리 쌍무덤 4기로 구성

지정 예고 30일간 의견 수렴·국가유산청 심의 거쳐 확정

전남도는 23일 전남 마한문화의 대표 유적인 '영암 시종 고분군'이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으로 지정 예고됐다고 밝혔다.

이번 예고는 1986년 도 지정 기념물 이후 2018년부터 마한문화유산 조사 및 연구지원 정책을 본격적으로 지원한 전남도와 영암군이 거둔 값진 성과다.

사적지정은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영암 시종 고분군은 5세기 중후엽에서 6세기 초에 조성된 대형 고분군으로, '옥야리 장동 방대형 고분' 1기, '내동리 쌍무덤' 4기 등 총 5개의 고분으로 구성됐다. 당시 마한의 사회·문화적 변화를 고분의 조성과 축조기술 및 유물들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출토유물로는 금동관 세움장식, 영산강 유역 특유의 토기, 현지화한 외래계 유물, 청자잔, 동남아시아산 유리구슬 등이 있다. 마한 세력이 백제·가야·중국·왜·동남아시아 등과 독자적 정체성을 가지고 활발히 교류했음을 보여준다.

영암 옥야리 장동 방대형 고분과 내동리 쌍무덤은 1986년 도 지정 기념물로 지정된 이후 큰 관심을 받지 못했으나, 전남도가 2018년부터 '마한 복원 및 정비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며 다양한 정책적 성과를 거뒀다.

전남도는 '역사문화권 특별법 제정'을 주도해 정비 사업, 중요 유적발굴 사업,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등 국비를 확보하고 국립기관을 유치했다.

전남도 사업으로 마한역사문화권 중장기 계획 수립, 마한문화 국제학술대회 개최, 마한유적조사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이번 성과로 이어졌다.

강효석 전남도 문화융성국장은 "도는 전남 마한유산 가치 복원을 위해 2018년부터 시군과 협력하고 있고, 이번 국가사적 지정 예고는 그 대표적 성과"라며 "마한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

무등산 평촌마을 '지오빌리지' 지정

시-평촌마을 협약…생태관광 프로그램 등 개발

광주시는 23일 무등산 평촌마을을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오빌리지(Geo-Village)'로 지정하고, 생태관광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지오빌리지'는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내 지질·생태·문화적 특성을 활용해 새로운 형태의 지질관광을 제공하는 마을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현윤 광주시 기후환경국장과 이은석 무등산 평촌마을 대표 등이 참석했다.

무등산 북쪽 자락에 위치한 평촌(坪村)마을은 동림, 우성, 담안, 닭뫼 등 4개 마을로 형성된 아담하고 한적한 농촌마을이다. 우수한 생태적 가치를 인정받아 2015년 환경부로부터 생태관광지로 지정됐고, 2024년 9월에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됐다.

또 농어촌 체험·휴양마을과 국립공원 마을로도 지정됐다.

광주시와 평촌마을은 이번 지오빌리지 지정과 협력 협약을 통해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브랜드가치 상승을 도모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편의 제공과 홍보 활동을 추진하고, 평촌마을은 생태관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한다.

또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과 연계한 지오브랜드 개발·운영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